

경제

공중전화부스 길거리 금융점포 변신

기업은행 ATM기 설치...“올해까지 광주·전남북에 200곳까지 확대”

공중전화부스가 기업은행과 만나 길거리의 새로운 금융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는 12일 올해 안에 광주·전남·북에 ‘길거리 점포’인 공중전화부스 ATM기를 최대 200곳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광주와 전남·북 도심에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은행 자동화기기(ATM)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IBK 길거리 점포’는 광주 19곳, 전남 21곳, 전북 19곳에 설치됐다.

기업은행이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ATM기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서울지역 200개에 비해 광주지역 내 영업점은 12곳에 불과, 경쟁 은행들 보다 턱없이 부족한 점포망을 보완하고 고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중전화는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

은 곳에 설치돼 있어 자연스럽게 은행 이미지 홍보 등 광고 효과도 노릴 수 있다.

특히 전남지역 ‘IBK 길거리 점포’에는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함께 설치돼 긴급 상황에서는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금융정보 검색과 화상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추가 개발에 힘을 기울여 공중전화부스 ATM기를 ‘스마트 점포’로 키운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기업은행의 ‘IBK 길거리 점포’는 전국에 350여 곳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최대 2000곳 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지난해 전국 7만여개 공중전화부스를 운영하는 KT링크스와 독점 제휴를 맺었다.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가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개조해 설치한 무인점포.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석준 기업은행 호남본부장은 “길거리 점포가 시민 편의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는 서울(200곳), 부산(50곳) 등 타 지역보다 점포 수가 많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기아차 미니CUV ‘레이 밴’ 출시

경차 기동성과 공간 활용 극대화



기아자동차는 신개념 미니 크로스오버차량(CUV) ‘레이 밴’을 출시했다.

기아차는 12일 경차의 기동성과 최적의 적재 공간을 갖춘 ‘레이 밴’을 시판한다고 밝혔다.

‘레이 밴’은 레이의 혁신적인 내·외관을 계승했다. 2열에 시트대신 적재 공간을 마련해 박스카의 장점인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장 1158mm, 전폭 1322mm, 전고 1183mm로 총 1403ℓ의 넉넉한 공간을 확보, 다양한 크기의 화물 운송이

필요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최고 출력 78마력(ps), 최대 토크 9.6kg·m의 카와1.0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차별화된 적재공간에 걸맞은 동급 최고의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또 운전석 에어백, 새시 통합 제어 시스템(VSM),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PS)을 기본으로 탑재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5인승 레이’와 동일한 17.0km/ℓ (신연비 복합모드 13.5 km/ℓ)의 우

수한 연비를 자랑한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채권 구입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혼잡통행료·공영주차료 각 50% 감면 등 다양한 경차 혜택을 보장 받는다. 가격은 기본 1135만원, 고급 1170만원이다.

한편, 기아차의 신개념 미니 CUV ‘레이’는 지난해 11월말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총 2만4000여대가 판매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美수출기업 10곳중 7곳 “한미 FTA 효과 긍정적”

상의 400곳 조사

대부분 대미 수출기업과 국민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준식)가 최근 대미수출기업 400곳과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3개월, 효과와 활용여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72.6%가 ‘한-미 FTA가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 국민은 66.8%로 집계됐다.

한-미 FTA발효에 따른 혜택을 묻는 말에 기업들은 ‘수출상당 증가’(59.1%), ‘수출주변 증가’(5.5%) 등을 꼽았다.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했거나 이를 추진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3.8%의 기업만 ‘그렇다’라고

응답해 ‘미국시장 진출계획이 없다’는 대답(56.2%)을 밀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과 관련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복수응답)를 묻은 결과 ‘원산지 증명·관리 어려움’(71.5%)이 가장 많았고 ‘미국시장 진출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52.4%), ‘미국시장 진출 소요자금과 전문인력 부족’(48.6%), ‘미국측 바이어가 수입확대에 소극적’(32.9%) 등의 순이다.

정부의 FTA 활용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있다’는 답변이 34.6%인 반면 ‘없다’는 대답은 65.4%였다.

국민들은 한미 FTA의 주요 혜택으로 ‘상품선택의 폭 확대’(44.3%), ‘수입품 가격하락에 따른 생활물가 안정’(22.7%), ‘수출·투자증대에 따른 일자리증가’(14.1%) 등을 차례로 들었다. /연남스

금호고속 지분 등

9500억 규모 자산

금호산업 매각 결의

금호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고속 지분 등 9500억원 규모의 핵심자산 매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자는 IBK투자증권&캐시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이며, 이달 말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각 자산은 ▲대우건설 지분 12.28%(4155억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38.74%(2000억원) ▲금호고속 지분 100%(3310억원)이며, 총 거래 금액은 약 9500억원이다.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이 8월 초까지 잔금을 납입하면 올해 초부터 6개월 이상 진행된 ‘패키지딜(Package Deal)’은 최종 완료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핵심자산 매각에 따라 유동성 및 부채비율 개선, 차입금 상환을 통한 금융비용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특히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경영 정상화에 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일렉 인수

예비후보 5곳 선정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일렉트로닉스와 보쉬, 삼라미아스 등 5곳을 인수 예비후보로 선정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대우일렉 인수의향서(LOI)를 낸 5곳을 모두 인수 예비후보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일렉트로닉스와 독일 보쉬 등 외국 가전업체, 부실기업 전문 인수업체 삼라미아스(SM그룹), 사모펀드 2곳 등이다. 사모펀드는 원목 컨소시엄과 중동계 컨소시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장이 별도 매각될 경우 대우일렉의 인수 적정 가격은 3500억~36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채권단의 대우일렉 매각 시도는 이번이 여섯번째로, 오는 8월말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TV가 헬스 코치 삼성전자는 최근 152편의 피트니스 콘텐츠를 추가해 총 230여편의 스마트TV 피트니스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번엔 업로드된 콘텐츠는 4개 카테고리, 총 22시간 분량이다. /연남스

10억 초과 국외금융계좌 미신고 댄 과태료 폭탄

국세청은 외국에 10억 초과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좌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의혹이 있는 혐의자 38명을 조사해 632억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13명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3억원 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국외금융계좌 미신고

자 43명에게는 과태료 19억 원을 물렸다. 기한 후 자진신고자 10명에게는 8억 6000만 원, 기각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33명으로부터 10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7월 2일까지 은행·증권 등 국외금융계좌 잔액의 합

계액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 원 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신고 의무자가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해 미 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

광주테크노파크는 오는 18일까지 창업보육공간(Post-BD)과 가전로봇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광, 전, 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업종과 로봇 관련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공간을 비롯해 기술개발, 장비, 마케팅, 교육, 컨설

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산업 재산권의 출원·등록,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은 물론 세계 10여개국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통한 해외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나 기업지원부(062-602-72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54.74 (-12.30)
코스닥지수	471.97 (+2.38)
금리 (국고채 3년)	3.29% (-0.03)
원·달러 환율	1,170.50원 (+4.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숯불구이전문점



대박나는 체인사업!!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서두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박사업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의 소자본으로 대박사업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맹비, 로열티 일체없음
인테리어 비용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최소금액 최소비용으로

맛! 2분면 OK!!
타지않고 완벽하게 빠른시간안에 구워지는 기발한 아이디어 숯불구이 전문점

품질 좋은 국내산 돼지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100% 진짜갈비와 생선감만 취급하는 국내산전문점입니다.

과격지원
간판교체비용
일체를 본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광주지역내 10개 점포에 한정

취급메뉴

돼지갈비숯불구이(국내산)	250g
생선감숯불구이(국내산)	200g
갈매기살숯불구이(국내산)	200g
생 오 리숯불구이(국내산)	200g

점심특선

갈비정식 5,000원 냐면 4,000원

정량판매(1인분) 7,000원
포장판매 take out 5,500원

체인점 문의 직통
062-265-8900 011-803-2612

오치본점 5개 오픈 성업중!

062-264-5343
일곡점 OPEN
062-573-5204
고대점 OPEN
062-526-6617

제주도 현지 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 등록번호 : 616-81-6823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

주소장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목포&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 3일

가족끼리, 친목, 산악회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편안한 제주여행 다시찾을 수 있는 제주무궁화 관광이 되립니다~

목포출발 『목기투어』 119,000원	녹동(고흥)출발 『녹동투어』 142,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83,000원 [주중+주중] 196,000원 [주중+주말] ★유료항로료포함★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 일요일 16:30 출발	▶1일째: 녹동남해고속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유료항로료포함★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입장료, 주차료

[1박2일크루즈투어] 85,000 (한라산 등반or1일 제주관광)	[3박4일크루즈투어] 155,000 (한라산 등반+2일 제주관광)	[2박3일크루즈+항공투어] 153,000(주중) / 173,000(주말) ★유료항로료 불포함★
---	---	---

제주도 패키지 2회 이용시 2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증정or 여행금액 할인 (택, 2인이상 예약시 1인에 한함)

항공/배편/호텔/펜션/렌트카 예약 입금계좌안내: 신한 100-024-625912 예금주: (주)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협찬: 남해고속씨월드헤리

